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30)

2차보고서 무엇을 담았나 ①셋알오름 동굴진지
길이 1km·격자형 구조... 단일 규모로는 제주 최대

입력 : 2009. 07.09. 00:00:00



▲셋알오름 동굴진지 내부통로의 천장부가 떨어져 내리면서 응회암 퇴적층이 노출돼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제주도항공기지 시설 지하화... 日 침략상 생생 입구·내부 통로 곳곳 자연적 인위적 훼손 진행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가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해 제주도민 등을 강제 동원해서 구축한 군사시설은 수백여 곳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고, 언론 등에 의해 일본군 주둔배경과 과정 등 실제규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과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 펴낸 '등록문화재 일제 동굴진지 종합학술보고서 Ⅱ'는 일본군 군사시설의 구축배경과 과정, 현 실태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서귀포시권 동굴진지 4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제주시권에 이은 두 번째로 구조와 규모 및 용도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담고 있다.

밝혀진 규모는?

셋알오름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10호)는 이번 학술조사 결과 단일 규모로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긴 것으로 밝혀졌다. 동굴진지는 모두 2곳으로, 오름 정상부에는 고사포(고각포)진지 2곳과 통신시설 등으로 추정되는 병커 1곳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밝혀진 동굴진지 2곳의 총 길이는 1,021m. 동굴진지가 시작되는 외부 기점을 포함할 경우는 1,360m에 이른다. 그동안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외부기점 포함 1,220m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길이가 밝

혀진 것이다.

이 가운데 '동굴진지 1'은 입구 6곳에 길이는 994m로 거의 1km에 달한다. 현재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가마오름 동굴진지 1'의 969m 보다 긴 단일 동굴진지로는 제주도내 최대 규모임이 밝혀졌다.



▲셋알오름 동굴진지 내부 천장부가 덩어리째 떨어져 바닥에 쌓여 있다.

어떤 용도로 구축됐나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어떤 용도로 구축됐을까.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그동안 그 성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왔다.

하지만 일본 방위청에 소장중인 문헌자료를 통해 셋알오름 동굴진지의 구축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일본 방위청에 소장중인 '제주도항공기지위치도'에는 셋알오름 지하호 도면이 나타나 있다. 1945년 5월1일 현재로 표시된 이 도면에는 고각포지휘소와 어뢰고 연료고 통신 목공장 병사 등이 표시돼 있다. 제주도항공기지위치도는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일본군 군사시설 위치 등을 표시한 지도라는 점에서 셋알오름 동굴진지 구축과정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제주도항공기지과 관련된 중요 시설을 지하화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군의 항공폭격으로부터 알뜨르비행장 일대의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셋알오름 지하호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제주도내 해안가 등지에 구축된 대부분의 지하갱도 등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제주도내 지하갱도 대부분이 미군의 상륙할 경우 최후 저항을 위한 일본군의 전투용으로 구축된 반면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군사시설을 지하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만들어졌다. 구조적으로는 격자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동굴진지 구축 상황이 당시 도면을 통해 뒷받침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셋알오름 동굴진지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적 근거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제의 침략상과 일본군 군사시설 조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역사현장으로 꼽힌다.



▲통로 내부를 벽돌로 막아 놓는 등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실태는 어떻게?

하지만 셋알오름 동굴진지 내·외부 환경은 훼손되거나 훼손위협에 노출돼 있다. 입구 6곳 가운데 주진입로 1곳만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우사로 이용되면서 훼손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출입구는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훼손 함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내부 통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셋알오름 동굴진지의 구축실태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구간도 있지만 10여 곳은 천장부가 떨어져 내리는 등 환경이 열악 장기적으로는 함몰 우려도 있다. 자연적 위협요인 못지않게 인위적으로도 무분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내부 일부 구간은 전기를 가설하고 벽돌로 담장을 쌓아 창고로 이용하는 등 무분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알오름 동굴진지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사전 정밀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일제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역사교육현장으로 정비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역사왜곡 안되도록 정비방향 설정 중요"

정비사업 어떻게 해야하나

제주도는 셋알오름 동굴진지와 관련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가칭)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셋알오름 동굴진지와 고사포진지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우선 안전검토를 통한 구조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평화대공원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유지인 셋알오름을 매입하여 정비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의 이번 용역은 학술조사를 통한 성격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서둘러 추진되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역사왜곡과 동굴진지 자체를 훼손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주역사문화진흥원 학술조사 결과 고사포진지 하부에 동굴진지가 위치해 있고, 동선이 겹쳐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감안한 신중한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일제 동굴진지를 정비하는데 있어 자칫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거나 역사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방향설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전 제주대 사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가 일본의 위대한 역사의 한 증거물로 인식한다면 역사는 불행하게 왜곡되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본군 전쟁유적을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형기자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